

인사 말씀

-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  -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서민금융 이용자분들, 관계기관장 및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- 지난 6월, 정부는 서민금융 현장 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‘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(6.23)’을 마련한 바 있음
  - 3개월이 지난 오늘, 그간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

〈감사와 격려의 말씀〉

- 먼저, 대책 발표 이후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원 방안이 예정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음
  - ❶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‘소액 신용카드 발급’의 경우, 7월부터 약 5,200장 지원
  - ❷ ‘긴급생계자금’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2,330분(88억원)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에 부응
- 이렇듯 서민금융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,
  - 일선에서 ‘따뜻한 마음’을 가지고 서민분들과 직접 마주하는 실무자분들,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기관장님들의 노고가 큼
- ➔ 이 자리를 빌어, 그간 서민금융 관계자분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〈자활재기 지원 강화 관련〉

- 지난 3개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금융지원과 결합된 ‘자활·재기 지원’의 중요성
  -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,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·재기할 수 있도록 ‘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’이 필요
- 이러한 맥락에서, 앞으로 본격화 될 ❶ 자활 패키지 상품(드림셋), ❷ 미소드림적금(Micro-saving)에 거는 기대가 큼
  - ❶ ‘드림셋’은 채무연체자에게 ‘채무조정-일자리제공-재산형성’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8월말부터 참여자 선정 중
    - \*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(최대 월 20만원)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(3년 적립시 세전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)
  - ❷ ‘미소드림적금(Micro-saving)’은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도모(9월말 출시 예정)
    - \*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(최대 월 10만원)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(3배)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(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)
- 이는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·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→ 서민금융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보여주는 ‘연결고리’로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
- 아울러, 종합적·입체적 자활·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, 지자체,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 필요
  - 특히, 더 많은 서민분들이 ‘드림셋’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, 여기 자리하신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

## <맺음말>

- 오늘 이 자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서민금융을 이용하신 분, 관계 기관장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한 취지
- 서민분들이 진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,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무엇보다 중요
- 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,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

## 마무리 말씀

- 오늘 먼 걸음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 서민 금융 이용자분들과,
  - 서민금융 현장에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다해주고 계신 관계 기관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
- 정부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'서민금융'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
- 지난 9월, 금융개혁을 통해 지향하는 비전이
  - ①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키워나가고
  - ② 서민과 중소·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
  - ③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을 밝힌 바 있음
- 궁극적으로 개혁의 결실은 서민·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높은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, 서민분들의 실질적인 자활·제기에 도움을 드리는 것인 만큼,
  - ➔ '서민금융'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, 우리 금융이 '따뜻한 금융'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
-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고객인 서민분들께 더욱 역점을 두고, 서민금융 정책 관련 사항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음
- 특히,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'서민금융진흥원'의 조속한 설립,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
- 관계기관장님들도 보다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, 서민분들과 직접 마주하는 실무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
- 감사합니다.